

공정거래 이준택 변호사

“기업결합 승인 늦어져 클로징 지체되면 안 되죠”

“기업결합 승인은 조건 없는 승인도 중요하지만 제때 승인을 받는 게 특히 중요해요. 승인이 늦게 나와 클로징이 지체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법무법인 광장의 이준택 변호사에 따르면, 경쟁당국으로부터 M&A 거래 승인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타이밍이다. M&A 계약에서 종결시점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기업결합 승인이 지체되어 거래 종결이 늦어지면 직원들이 동요한다든가 인수되는 회사의 직원들이 위로금을 더 달라고 하는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M&A 거래가 종결된 삼성과 한화의 화학분야 빅딜, 삼성과 한화의 방산분야 빅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케이스가 모두 시간을 다투었던 사례로, 이 변호사의 손을 거쳐 국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고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삼성-한화 빅딜 등 승인받아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중합화학과 그 자회사인 삼성토탈을 인수하는 M&A에서 이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 관련 6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국 공정위가 내린, 신발 밑창에 쓰이는 EVA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가격인상률을 제한하는 시정조치 외엔 모두 조건 없는 승인으로, 이 변호사는 “화학제품의 품목을 세분화해 시정조치의 범위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화가 삼성테크윈과 자회사인 삼성탈레스를 인수하는 방산분야 빅딜에선 방위산업의 특성을 잘 설명해 국내는 물론 중국, 우크라이나, 터키, 독일에서 아무 조건 없이 신

속하게 승인을 받아냈다.

올해 이 변호사가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거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5월 26일 합병이 발표된 후 합병기일로 예정된

9월 1일까지 불과 3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데다 중간에 여름 휴가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추진했는데, 휴가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멕시코가 문제였다. 이 변호사는 멕시코 현지 로펌과의 협업 아래 한국어로 된 서류를 영어로 번역한 후 다시 이 영어본을 스페인어로 번역해 제출하고, 시급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곧바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후 검증을 거쳐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목표한 대로 휴가기간이 시작되기 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업-변호사 협업 중요

“예정된 시간 안에 조건 없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선 해당 기업과 변호사의 협업이 특히 중요해요.”

이 변호사는 삼성과 롯데와의 화학 빅딜 승인 신청에 이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거래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



서울대 외교학과/행시 32회/사시 39회/총무처 행정사무관/조지타운 로센터(LLM)/법무법인 광장

조세 손병준 변호사

집행저지결정 이어 동부하이텍 영업권 소송 승소

손병준 변호사는 올해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본안 사건보다도 세무서의 강제집행을 막아낸 집행정지결정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천억원 상환 막아내

사안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한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772억원의 법인세 부과 취소사건. 2백 몇십억원은 납부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어 채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차입한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를 곧바로 상환해야 해 당장 세무서의 압류를 막는 게 시급했다. 동부하이텍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손 변호사는 재판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집행정지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수행, 부과된 세금 772억원 전액을 취소하는 1,2심 판결을 받아냈다.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며 제공한 합병신주의 발행가 5923억원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순자산 2991억원과의 차액 2931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익금 산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본안 판결도 유사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리딩 케이스로, 손 변호사는 비슷한 쟁점의 또 다른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돈을 빌리는 데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서며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

수료가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에 의해 산출한 정상수수료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국내 모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취소소송도 손 변호사가 여러 건을 수행 중인 주요 사건 중 하나. 그는 LG전자를

대리해 지난 10월 22억원의 법인세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비슷한 이유로 수십억원씩 법인세가 부과된 현대차, 현대중공업 사건도 수행하고 있다.

“기업활동이 국제화되면서 지급보증수수료와 같은 이전가격 문제, 국내법인의 원천징수 등 국제적인 이슈가 쟁점으로 등장하는 조세사건이 늘고 있어요. 또 동부하이텍 사건에서처럼 기업간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법인세 사건이 꾸준히 예상되는 가운데 보통 과세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조세사건의 덩치가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진로하이트 회장 포괄증여 사건 수행

손 변호사는 올해 조세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끈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증여세법상의 '포괄증여' 사건의 첫 케이스인 진로하이트그룹 회장 사건도 대리하고 있다. 추후지정되었다가 최근 변론이 재개되어 최종 변론을 마쳤다. ■



고려대 법대/행시 36회/사시 35회/서울중앙지법 판사/동경대 객원연구원/법무법인 광장